

신주쿠에 새롭게 이주해 오신 한국인
들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기록·집·작성
열심히 보이는 지역사회 만들기 기초작업

현재, 일본은 다문화, 다민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주쿠만 보더라도 한국인 이주자가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주민들과의 교류가 반드시 많다고는 말할 수 없어서 “얼굴이 보이는 관계”라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의 한국인 이주자 100명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신주쿠구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인생의 소중한 부분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1일
연구대표 와타나베 유키노리

기간: 2009년 11월 ~ 2011년 10월
도요타재단 2009년 연구조성
(D09-R-0422)

이 프로젝트에 관한 문의는
〒252-0383 神奈川県相模原市南区文京2-1-1
相模女子大学10号館406研究室 渡辺幸倫
TEL: (042)749-2312
Email: watanabe-y@star.sagami-wu.ac.jp
<http://koreannewcomersintokyo.web.officelive.com>

프로젝트 개요

다문화, 다민족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지역사회는 주민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신주쿠는 한국인 이주자가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과의 교류가 적어 “얼굴이 보이는 관계”라는 지역사회를 만들기위한 기반이 취약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인 이주자 100명에게 한 시간 정도의 라이프 히스토리 인터뷰를 하여 본인의 동의하에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인쇄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 측에는 “지역사회에 속한 한국인 또한 인생의 소중한 한 시기를 같은 지역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프로젝트는 인생에 대하여 듣고 말하는 것을 통해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내러티브)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모든 분들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짐과 동시에 사회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사람과 지역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그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스케줄

2009년

11월 준비

12월 예비조사

2010년

1월 인터뷰 개시

5월 성과 공개

(홈페이지, 인쇄물등)

9월 성과 공개

(홈페이지, 인쇄물등)

10월 중간보고회, 중간보고서 발행

2011년

3월 성과 공개

(홈페이지, 인쇄물등)

7월 성과 보고

(홈페이지, 인쇄물등)

10월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 발행

프로젝트 멤버

渡辺 幸倫 (와타나베 유키노리) 相模女子大学 학예학부 전임강사/ 사회교육, 언어교육
若園 雄志郎 (와카조노 유시로) 北海道大学 아이누·원주민 연구 센터 박사 연구원/ 다문화교육, 소수민족교육

川村 千鶴子 (카와무라 치즈코) 大東文化大学 환경창조학부 교수/ 이민정책, 다문화사회론

宣 元錫 (선원석) 中央大学 종합정책학부 겸임강사/ 사회정책, 노동문제, 이민정책

藤田ラウンド 幸世(후지타라운드 사치요) 桜美林大学 기반교육 비상근강사/ 사회언어학, 바이링걸(bilingual)교육

河合 優子 (카와이 유코) 東海大学 문학부 준교수/ 이문화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론

李 坪鉉 (이호현) 早稲田大学 교육·종합과학학술원 비상근강사, 和洋女子大学 인문학부 비상근강사/ 사회교육, 문화간 이동자의 문화변용

武田 里子 (타케다 사토코) 明星大学 비상근강사, 放送大学 東京文京學習センター 비상근강사/ 지역사회학, 다문화사회론

堀内 康史 (호리우치 야스시) 大東文化大学 환경창조학부 비상근강사/ 사회학

呉 世蓮 (오세연) 早稲田大学 大学院 연구 교육학과/ 생애교육, 다문화교육의 한일 비교